

# 朱熹의 楚辭學이 갖는 심층의의 고찰\*

— 朱熹의 특수한 신분이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

안 찬 순\*\*

— <目次> —

I. 서언	2. 초사학에서 주희의
II. 주희의 초사학이 갖는 심층 의의	《楚辭集注》가 갖는 의의
1. ‘楚辭’ 연구에 매진한 동기	III. 결어
관련	

## I. 서언

朱熹는 평생 학술에 진력하여 송대 성리학을 집대성하였으며, 후세 중국 및 여타 동아시아 지역 학술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가 흔히 그를 ‘朱子’라고 일컫는데 중국학술사를 망라하여 역대 인물들 가운데 先秦 諸子를 제외하고 거의 유일하게 ‘子’로 칭하는 것에 특별한 異議를 제기하지 않는 것만으로 그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중국 학술사에서 주희는 여러모로 특별한데,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아무래도 그가 성리학의 대종사임에도 역대 성리학자들이 대체로 문학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문학과 문학창작에 큰 흥취와 깊은 조예를 지녔다는 사실이다. 그의 1,300여 수<sup>1)</sup>에 이르는 詩歌 창작과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경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朱文公文集》권1-10까지 모두 詩賦로 1,148수, 《別集》권7과 《朱熹佚文

《朱子語類》·《朱子全書》 등에 보이는 문학적 식견, 그리고 《韓文考異》·《詩集傳》·《楚辭集注》 등의 문학 관련 저술에 보이는 문학적 조예와 성취는 전문 문인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어떤 전문 문인도 이르기 어려운 수준의 성취를 보여준다.

그런데, 《朱子年譜考異附錄》에 따르면 그가 70세, 즉 그의 사망 1년 전인 1,200년 3월에 《楚辭集注》·《楚辭後語》·《楚辭辯證》이 완성되었다(五年己未七十歲春三月《楚辭集注》·《後語》·《辯證》成)<sup>2)</sup>이라고 하고 주희의 문하인 蔡沈(1167~1230)에 따르면 주희는 임종 직전까지도 “초 6일 신유에 《대학》〈誠意〉章을 수정하고, 詹淳으로 하여금 베껴 적게 하고 또 몇 자를 수정하고, 또 《楚辭》<sup>3)</sup>의 한 단락을 고쳤다. 오후에 크게 설사를 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시고는 이로부터 다시는 樓下 서원을 나서지 못하였다(初六日辛酉, 改《大學》〈誠意〉章, 令詹淳謄寫, 又改數字, 又修《楚辭》一段, 午後大瀉, 隨入宅室, 自是不復能出樓下書院矣).”<sup>4)</sup>라고 하고 있어서 임종 직전까지도 ‘楚辭’ 관련 연구를 지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楚辭’ 관련 저술은 심지어 明·清代 일부 학자들에 의해 위작으로 의심받을 만큼<sup>5)</sup> 특이한 일이었다.

輯考》의 佚詩 합하면 1,300여 수, 그 외 詞 16수 전함.

- 2) 王懋竑 纂訂, 《朱子年譜考異附錄》 卷四下, 臺灣: 商務印書館, 1971, 224쪽.
- 3) 작품집 성격으로서의 楚辭는 ‘《 》’로 표시하나 단순 작품 일반의 성격으로 楚辭는 ‘ ’부호를 사용함을 밝힌다. 다만 명확한 구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으나 그런 경우 필자 주관적 판단에 따랐음을 미리 밝힌다.
- 4) 王懋竑 纂訂 《朱子年譜考異附錄》 卷四下, 臺灣: 商務印書館, 1971에 수록된 蔡沈, 〈夢奠記〉참고.
- 5) 毛慶의 〈宋代楚辭研究思想初探〉, 《西部學刊》 2015.2의 29쪽 “청대 유명한 초사학자 주기·주방채·하대립 등은 공개적으로 《楚辭集注》가 위작이라고 의심하였다(清代幾位著名楚辭學者朱冀·王邦采·夏大霖均公開懷疑《楚辭集注》是偽作).”라고 하였는데, 黃靈庚이 點校한 《楚辭集注》(上海古籍出版社, 2022)를 보면 〈前言〉 2쪽에서 청대 사람 夏大霖의 〈屈騷心印參評〉 인용하여 “명나라 사람 毛以陽과 같은 사람은 마침내 《楚辭集注》를 “주자가 쓴 것이 아니라 후대사람들이 그렇게 부회한 것이다”(明人若毛以陽者遂謂集注“非朱子手定, 乃後人附會”)”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명·청시대에 많은 이가 의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굴원의 ‘楚辭’에 대해서는 대략 西漢의 劉安(bc.179~bc.122)-司馬遷(bc.145?~?)-劉向(bc.77~bc.6)으로 이어지는 높은 평가 이후 東漢의 班固(32~92)는 주로 전통 유가적 관점에서 다른 평가를 하었는데, 반고의 평가는 대체로 후세 유가적 관점에서 굴원과 그의 작품을 비판하는 핵심 내용이 된다.<sup>6)</sup>

班固는 굴원의 문학적 성취에 대해서는 “辭賦宗”이라 하며 긍정하였으나, 굴원의 처세나 “風·雅의 장점을 겹했다고 하는 것”과 같은 평가에 대해서는 과하다 여기며 다소 각박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東漢 王逸(89?~158)은 《楚辭章句》에서 다시 司馬遷과 劉向의 의견을 대체로 계승하며 班固의 견해에 반박하기도 하였다.

그 후 劉勰(465?~?)은 또 《文心雕龍·辨騷》에서 前人의 평가의 미흡함을 지적한 후 애써 유가적 관점에 비춰 그 부합 여부를 가린 후 궁극적으로 <離騷>를 비롯한 ‘楚辭’를 ‘文’의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평가하였는데, 본고는 이에 대해서 뒤에서 주희의 이에 대한 평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詩經》과 《楚辭》는 모두 그 자체로 문학작품집이다. 그러나 주희 당시에는 《詩集傳》의 경우 ‘문학’의 영역이 기 전 ‘儒學’·‘經學’의 영역이기도 하였기에 성리학의 대종사 주희의 관심

6) 郭紹虞 主編 《中國歷代文論選》 1, 上海古籍出版社, 1983, 69쪽에 수록된 班固의 <離騷序> “지금 굴원 같은 사람은 재주를 드러내고 자신을 드높이고 위대한 조정의 소인배들 사이에서 다투다가 소인배의 비방과 참언을 만났다. 그런데 懷王을 나무라고 子椒와 子蘭의 무리를 원망하고 증오하다가 고심하여 심하게 사람들을 비난하며 울분에 차서 견디지 못하고 강에 빠져 죽었으니 또한 지조 있고 덕망 있는 인사를 깎아내리는 일이다.……그의 글을 시경의 風·雅의 장점을 겹하고 일월과 광채를 다룰 정도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러나 그의 글은 규모가 크고 아름다워서 詞賦의 종사로 후세 사람들이 그 문사의 아름다움을 본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그의 문사의 넉넉함을 본받는 것이다.(今若屈原, 露才揚己, 競乎危國群小之間, 以離讒賊, 然責數懷王, 怨惡椒·蘭, 愁神苦思, 強非其人, 忿懣不容, 沈江而死, 亦貶絮狂狷景行之士, ……謂之兼詩風雅, 而與日月爭光, 過矣! 然其文弘博麗雅, 爲辭賦宗, 後世莫不斟酌其英華, 則象其從容.)”

과 연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나, ‘楚辭’ 관련 저술은 문학 영역의 작업이라 理學家 주희가 만년에 이에 매진한 일은 유학자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특이한 일에 속한다.

본고가 말하는 이른바 ‘심층의의’의 초점은 아래 두 가지에 두고자 한다. 첫째는 성리학의 대종사인 주희가 만년을 《楚辭集注》의 저술에 매진하게 된 점, 즉 주희 이전 漢 이래로 劉向의 《楚辭》, 王逸의 《楚辭章句》, 그리고 송대의 洪興祖의 《楚辭補注》 등 기존의 다수 ‘楚辭’ 관련 저술이 있었음에도 만년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楚辭集注》의 저술에 매진하게 된 동기를 고찰해 본다. 둘째는 학술사에서 주희의 《楚辭集注》가 갖는 특별한 의의를 다루고자 하는데, 본고는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주희의 《楚辭集注》가 내용적으로 학술사 그리고 초사학사에서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도 주로 그가 가진 신분적 특수성에 착안하여 학술사에 미친 영향 등 현상적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 학계에 주희의 ‘楚辭’에 관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많지만, 본고는 아직 보완의 여지가 있고, 국내의 경우 아직 본 주제 관련 연구가 많지 않고 방향도 차이가 있기에<sup>7)</sup> 이 주제를 다루어 보는 것이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II. 주희의 초사학이 갖는 심층의의

주희의 초사학 관련 저술로는 《楚辭集注》 8卷, 《楚辭辯證》 2卷, 《楚辭後語》 6卷<sup>8)</sup> 등 3종이 있다. 이들 저술은 세부적 成書 시기에는 차이가

7) 국내 학자의 관련 연구로는 박영환의 〈朱熹撰《楚辭集注》의動機考〉(《先秦兩漢文學論集》, 2004.6, 282-305쪽)가 있음.

8) 《楚辭後語》나 《楚辭辯證》은 후에 《楚辭集注》와 합간 되었기에 본고에서는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楚辭集注》’로 전체를 통칭한다. 《楚辭辯證》은 판본에 따라 《楚辭辨證》으로 쓰기도 하나 본고는

있지만 모두 대체로 주희가 임종 전 마지막 5년 전후 저작이고 모두 연계 선 상의 연구 성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1. ‘楚辭’ 연구에 매진한 동기와 관련

주희가 《楚辭》 연구에 매진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그의 문하조차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는 주희가 스스로 학술적 동기 외에는 직접 밝힌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 楊楫(1142~1213)의 《楚辭集注》〈跋〉을 참고해 본다.

慶元 乙卯(1195)년에 내가 長溪에서 考亭精舍로 선생님을 모시러 갔는데, 그때 조정에서 黨禁이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승상 趙汝愚가 유배 길에 사망했다. 선생님께서 시국을 걱정하는 마음을 자주 얼굴에 내비치셨다. 그러던 갑자기 어느날 학생들에게 선생님께서 주석한 《楚辭》一編을 보여주시며, 나는 나와서, ‘선생님께서 평소 학생을 가르칠 때 먼저 《대학》·《논어》·《맹자》·《중용》 등 四書로 하고 그다음 六經, 또 다음에 史傳이었고, 秦漢 이후 詞章에 대해서는 그저 여담으로 언급하실 뿐이었는데 유독 《楚辭》에 주석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 제자들도 감히 직접 여쭙지 못하였다(慶元乙卯(1195)楫自長溪往侍先生於考亭之精舍, 時朝廷黨人方急, 丞相趙公謫死於道, 先生憂時之意屢形於色, 忽一日, 出示學者以所釋《楚辭》一編, 楫退而思之, 先生平居教學者, 首以《大學》·《語》·《孟》·《中庸》四書, 次而六經, 又次而史傳. 至於秦漢以後詞章, 特餘論及之耳. 乃獨爲《楚辭》解釋其義, 何也? 然先生終不言, 楫輩亦不敢竊而請焉).<sup>9)</sup>

위 楊楫의 〈跋〉은 지금까지 주희의 ‘楚辭’ 관련 언급 가운데 주희와 時空間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던 이의 傳言이라 믿을만하다.<sup>10)</sup> 양점이 밝히

《楚辭辯證》으로 통일한다.

9) 王懋竑 纂訂, 《朱子年譜考異附錄》 卷四下, 臺灣: 商務印書館, 1971, 219쪽.

10) 그 외 王應麟(1223~1296)의 《困學紀聞》이나 周密(1232~1298)의 《齊東野

듯 주희는 스스로 저술 동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고, 또 제자들이 그 이유를 여쭙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어느 날(忽一日)’은 구체적으로 趙汝愚가 사망(1196)한 후 얼마 후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문맥상 그리 오래지 않은 시간으로 보여 趙汝愚 사망 사건 이전 이미 成書 단계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 1) 학술적 동기 관련

주희는 한마디로 걸출한 학자이다. 그래서 그의 《楚辭集注》〈序言〉를 보면 漢代 王逸의 《楚辭章句》와 宋代 洪興祖의 《楚辭補注》 등 기존의 저작에 대한 학술적 불만으로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고자 한 의도는 무엇보다 뚜렷하고 중요하다.

東漢 王逸의 《楚辭章句》와 근세 洪興祖의 《楚辭補注》가 나란히 세상에 전하는데 두 책은 訓詁와 名物 부분에서는 이미 상세하다. 다만 왕일의 《楚辭章句》가 취사한 것은 그 제목과의 부합 여부에 논할 것이 많았는데 홍흥조는 《楚辭補注》에서 모두 바로잡지 못하였다. 원문의 대의를 거듭 숙고하고 詠歎하면서 그 문사가 가리키는 바를 찾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맥락 없이 갑자기 비유를 들어 설을 세우고 잘못된 논증을 엉뚱하게 끌어들이어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 건강부회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는 빙빙 돌려 말하거나 막혀서 본래 작자가 표현하고자 한 性情에서 멀어지고 어떤 경우는 조금하게 파악하려다 본래의 義理를 해쳤다. 그래서 굴원의 행적은 그 당시 굴원 자신이 답답해하며 나타내지 못했던 것이 후세에도 가려져 드러나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이에 더욱 느끼는 바가 있어서, 병으로 아파서 신음하는 중에 옛날 쓴 것을 토대로 약간 수정하여 《楚辭集注》 8권을 엮었다. 바라건대, 독자들은 이를 통해 천 년 전의 옛사람을 만날 수 있고, 죽은 굴원은 일어나서 또 천년 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어 후세 사람에게 알려지지 못함을 한스러워하지 않았으면 한다(東京王逸《章句》與近世洪興祖《補注》并行於世, 其於訓詁名物之間,

語》, 그리고 《宋史·朱熹傳》에 모두 관련 내용을 싣고 있지만 모두 시기적으로 100년 전후의 격차가 있다.

則已詳矣。顧王書之所取舍，與其題號離合之間，多可議者，而洪皆不能有所是正。至其大義，則又皆未嘗沈潛反復，嗟歎詠歌，以尋其文詞指意之所出，而遽欲取喻立說，旁引曲證，以強附於其事之已然，是以或以迂滯而遠於性情，或以迫切而害於義理。使原之所爲壹鬱而不得申於當年者，又晦昧而不見白於後世。予於是益有感焉。疾病呻吟之暇，聊據舊編，粗加槩括，定爲《集注》八卷。庶幾讀者得以見古人於千載之上，而死者可作，又足以知千載之下有知我者，而不恨於來者之不聞也。<sup>11)</sup>

이는 주희의 《楚辭集注》 편찬과 관련된 가장 상세한 그의 自述이다. 주희는 여기서 王逸의 《楚辭章句》나 洪興祖의 《楚辭補注》내용이 주로 상세한 훈고와 명물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취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사장구》에 미진한 부분이 《초사보주》에서 바로잡히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후세 독자와 굴원에게 모두 餘恨이 남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그는 “굴원의 행적은 그 당시 굴원 자신이 답답해하며 나타내지 못했던 것이 후세에도 가려져 드러나지 못하게 된 것”을 언급하며 그래서 자신이 《楚辭集注》의 편찬을 통하여 이를 바로 잡아 문제를 해소하여 “천 년 전의 옛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고, 죽은 굴원도 일어나서 또 천년 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어 후세 사람에게 알려지지 못함을 한스러워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적고 있다. 이는 주희가 스스로 저술 동기를 분명하게 밝힌 중요한 내용이기에, 우리는 이를 통해 저술 연유 가운데 학술적 동기가 크게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주희가 그 이전 편찬된 ‘楚辭’ 관련 주요 저작인 《楚辭章句》와 《楚辭補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의 주된 불만은 그와 가까운 宋代 洪興祖의 《楚辭補注》가 후에 나왔음에도 《楚辭章句》에서의 미진한 부분을 충분히 바로잡지 못한 것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주희가 〈序言〉에서 이렇게 학술적 동기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이 동기뿐인지? 또 그 외 여타 이유가

11) 王懋竑 纂訂, 《朱子年譜考異附錄》 卷四下, 臺灣: 商務印書館, 1971, 224, 225쪽.

있음에도 말하지 못하는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로 이에 대해서도 뒤에서 한 번 다루어 본다.

우리는 위의 〈序言〉에서의 자술뿐만 아니라 여러 타인의 轉言을 통하여 ‘楚辭’에 대해 그가 평소 전인들의 이해가 미흡함을 말하곤 했음을 볼 수 있다. 예로 《朱子語類》에도 아래와 같은 말이 보인다.

최근에 굴원의 글을 간혹 읽어보니 처음부터 誤讀되었다. …… 그가 쓴 ‘楚辭’ 수 편을 보면 모두가 임금에 의지하고 그리워하면서 懷王을 차마 떠나지 못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간절히 거듭 스스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디 어느 한 구절 懷王을 욕하는 것이 있는가? ……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구절구절 懷王을 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니 이는 굴원을 왜곡하여 말하는 것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굴원의 뜻을 보지 않았기에 그런 것이다(近偶閱之, 從頭被人錯解了. ……觀他所作離騷數篇, 盡是歸依愛慕, 不忍捨去懷王之意. 所以拳拳反復, 不能自已, 何嘗有一句是罵懷王. ……而今人句句盡解做罵懷王, 枉屈說了屈原, 只是不曾平心看他語意, 所以如此.” 儻(69이후)).<sup>12)</sup>

여기서는 주희 자신이 굴원의 작품을 읽으면서 전인들의 저서에서 진실이 곡해되고 와전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 “굴원은 본래 충직하고 임금을 걱정하고 아끼는 사람인데…… 어디 어느 한 구절 懷王을 욕하는 것이 있는가?”라는 지적을 통하여 이와 같은 곡해는 “평정한 마음으로 굴원의 뜻을 보지 않았기에 그러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九歌〉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색다른 이해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楚辭’에서 그렇게 임금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람들은 모두 임금을 원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꼴이 아니다. 〈九歌〉는 임금을 신으로 가탁하여 인간 세상과 격리되어 다다를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임금에게 다가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과 같다. 이로써 보면 그는 임금

12) 黎靖德 編, 《朱子語類》, 中華書局, 1986, 권137, 제18조목.

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山鬼〉편에서는 임금을 귀신으로 할 수는 없어서 또 반대로 山鬼가 사람과 가까이하고 싶으나 할 수 없다는 뜻을 말하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글을 이해함에 전체적인 뜻을 살피지 않고 단지 한 구 한 구 글자만 따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뜻이 도리어 꿰어지지 않게 되었다. 楚辭(楚詞不甚怨君, 今被諸家解得都成怨君, 不成模樣, 九歌是托神以爲君, 言人間隔, 不可企及, 如已不得親近於君之意, 以此觀之, 他便不是怨君. 至山鬼篇, 不可以君爲山鬼, 又倒說山鬼欲親人而不可得之意, 今人解文字不看大意, 只逐句解, 意卻不貫. 楚詞.)<sup>13)</sup>

이 부분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지적이다. 이는 작자가 임금을 귀신이라고 설정하기에 부적절하기에 山鬼를 사람으로 사람을 임금으로 설정한 것인데, 주희는 그간 독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山鬼〉의 작자가 임금을 ‘山鬼’로 설정한 것인 줄 곡해하여 작자가 임금을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해 온 점을 지적하고, 이는 사람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字句만 좇아 이해하려다 생긴 誤讀임을 설명하고 있는데, 주희의 이러한 설명은 합리적인 해석으로 설득력이 있다. 이상에서 보듯 전인의 ‘楚辭’ 연구나 이해의 부족함, 그리고 ‘楚辭’나 굴원에 대한 오독에 따른 비판이나 곡해가 있음에 대한 불만이나 아쉬움이 학자 주희가 ‘楚辭’ 관련 연구를 진행하게 된 한 가지 중요한 이유임을 알 수 있다.

## 2) 현실정치에 대한 有感<sup>14)</sup>과 관련

이 부분은 주희의 ‘楚辭’ 연구 동기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많은 연구자가 가장 중요한 동기로 지목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본고는 이와 관련된 주요 논점을 소개하고 개인적 견해도 개진하고자 한다.

필자가 파악한 바로, 이와 관련한 연구는 莫礪鋒의 《朱熹文學研究》<sup>15)</sup>

13) 黎靖德 編, 《朱子語類》, 中華書局, 1986, 권139, 제2조목.

14) 이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관련 내용을 다룬 많은 논저에서 논하고 있어서 간단히 언급만 하고 부연 설명은 생략한다.

가 가장 소상하다. 모리평은 “주희의 저술 사업은 왕왕 현실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楚辭集注》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대하여 남송 사람들은 매우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sup>16)</sup>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周密(1232~1298?)의 말을 인용하여 전하고 있다.

趙汝愚(1140~1196)는 영주로 貶謫되었다가 형주로 가서 죽었다. 주희는 그로 인해 〈離騷〉에 주를 달아 마음을 기탁하였다(趙汝愚永州安置, 至衡州而卒. 朱熹爲之注〈離騷〉而寄意焉).<sup>17)</sup>

이와 같이 趙汝愚의 일과 《楚辭集注》의 편찬을 직접 관련지은 것은 周密의 《齊東野語》가 처음인 듯하며 周密의 상기 견해에 대해서는 《四庫全書總目》에서도 아래와 같이 인용하여 말하고 있다.

“趙汝愚가 영주로 폄적갔다가 衡州에 이르러 죽자, 주희는 그로 인해 〈離騷〉에 주를 달아 자신의 마음을 기탁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주희의 《楚辭集注》의 큰 취지는 굴원이 축출당한 일로 宗臣이 폄적당하는 것을 빗대고, 송옥의 〈招魂〉으로 그러한 옛 지인에 대한 슬픔을 나타낸 것으로 실재 그 문자해석이나 음물에 얽매어 구구절절 그 득실을 따질 것은 아니다. (汝愚永州安置, 至衡州而卒. 朱熹爲之注〈離騷〉以寄意焉. 然則是書大旨在以靈均放逐寓宗臣之貶, 以宋玉〈招魂〉抒故舊之悲耳. 固不必於箋釋音協之間, 規規爭其得失矣).<sup>18)</sup>

15) 莫礪鋒, 《朱熹文學研究》, 南京大學出版社, 2000, 262~298쪽에 걸쳐 第六章〈朱熹의 楚辭學〉 참조. 본고에서는 莫礪鋒의 《朱熹文學研究》원저 외에 이홍진·안찬순 공역 《주희 문학의 연구》, 역락, 2015도 일부 참고하였으나 대부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16) 莫礪鋒, 《朱熹文學研究》, 南京大學出版社, 2000, 263쪽. “朱熹의 著述事業, 往往是與現實政治有密切關係的, 《楚辭集注》也不例外. 對此, 南宋人就有很清楚的認識.”

17) 莫礪鋒, 《朱熹文學研究》, 南京大學出版社, 2000, 263쪽 인용.

18) 永瑤等, 《四庫全書總目》卷148, 集部, 楚辭類 ‘楚辭集注’ 北京: 中華書局 1987, 1,268쪽.

이를 보면 《四庫全書總目》에서는 대체로 관련성을 부정하지 않으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즉 여기에서는 주희가 《楚辭集注》를 저술한 이유를 단순히 趙汝愚 개인사에 국한한 동기로 집필한 것이 아니라 굴원이 초나라의 종신으로 축출당한 일을 趙汝愚가 宗臣의 신분으로 방출당한 일로 빗대기 위함이고 또 宋玉의 〈招魂〉을 통하여 옛 지인에 관한 슬픔을 나타내는 것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周密에 앞서 陳振孫(1179~1261?)도 관련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공이 이 《楚辭集注》를 지은 것은 慶元 연간 물러나 돌아갔을 때로, 〈序言〉에서 말한 바로 쫓겨난 신하·버림받은 자식·원망하는 처·버림받은 아낙네에 대해서 모두 느끼는 바가 있어서 기탁한 것이다(公爲此注, 在慶元退歸之時, 序文所謂放臣·棄子·怨妻·去婦, 皆有感而託者也.)<sup>19)</sup>

陳振孫은 慶元黨禁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趙汝愚의 꾀적 및 죽음과의 관계를 직접 거론하고 있지는 않다. 실제 趙汝愚는 한탁주로 인해 재상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永州를 거쳐 1196년에 衡州에서 생을 마쳤다. 陳振孫이나 周密의 생졸년은 주희와 100년 내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 이러한 정황 기록은 분명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淸 鮑廷博(1728~1814)이 쓴 吳仁傑의 《離騷草木疏》에 대한 〈跋〉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선생의 이 책을 살펴보니 경원 정사(1197)년에 완성되었다. 그때 寧王이 처음 정사를 필집에 韓侂胄가 막 옹립과 추대의 공을 독차지하여 趙汝愚와 마찰이 있었다. 얼마 후에 趙汝愚를 내치고 朱子를 파면하고는 僞學의 禁을 준엄하게 하여 이에 벌을 받은 이가 59명이었다. 선생은 관직이 국록에서 멈춘 터라 감히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離騷〉를 조술하면서 초목에 빗대고 《신농본초》 등 여러 책을 살펴 그것의 품류를 구별하고 그 차이를 가렸다. 향초와 악초가 나뉘지니 충신과 간신이 드러났다. ……

19) 莫磯鋒, 《朱熹文學研究》, 南京大學出版社, 2000, 263쪽 인용.

趙汝愚가 永州로 귀양 갔다가 衡州에서 죽었을 때 朱子도 역시 이를 위하여 <離騷>에 주를 달아서 뜻을 기탁 했다. 책이 완성된 것은 오인걸 선생보다 2년 늦으나 시절을 느끼고 죽은 이를 슬퍼하여 몹시 비통해하여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는 情은 또한 때때로 행간에 흐르고 드러난다. 이 책은 먼저 주자의 마음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考先生是書, 成於慶元丁巳, 維時寧王初政, 韓侂胄方專擁戴功, 與趙汝愚相軋, 既而斥汝愚, 罷朱子, 嚴僞學之禁, 從而得罪者五十九人, 先生官止國錄, 未敢誦言, 乃祖述<離騷>, 譬之草木, 按<神農本草>諸書, 爲之別流品, 辨異同, 薰蕕既判, 忠佞斯呈 ……當汝愚之責永州而卒於衡也, 朱子亦爲之注<離騷>以寄意焉, 其成書後於先生二年, 而其感時傷逝, 纏綿惻怛, 不能自己之情, 亦時時流露於行墨間, 是書也, 可謂先得朱子之心矣!)<sup>20)</sup>

이에 대해서 모리핑은 “鮑廷博이 오인걸의 책을 주희의 <楚辭集注>와 연계하여 살핀 것은 매우 안목이 있다”<sup>21)</sup>라고 하면서 “그러나 주희가 <楚辭集注>를 편찬한 직접적인 촉발 요소는 慶元黨禁이지만 그는 일찍부터 ‘楚辭’의 사상적 의의를 중시하였고 또 더욱 깊고 넓은 시대 배경 속에서 이러한 의의를 파악하였다. 간략히 바꾸어 말하면, 주희가 <楚辭集注>를 지어 ‘楚辭’ 중의 “임금에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참 마음”을 발양하려고 한 것으로 趙汝愚와 蔡元定 등을 위하여 그 충혼을 불러들이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남송의 애국지사를 고무하기 위한 것이었다.”<sup>22)</sup>라고 하였는데,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는 적절한 분석이다. 다만 모리핑이 말한 “주희가 <楚辭集注>를 편찬한 직접적인 촉발 요소는 ‘慶元黨禁’이지만”이라고 한 부분은 분명 그럴 개연성이 있고, 본고도 저술의 동력으로 여타 그만한 것을 찾기가 어렵기에 중요 요소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그것이 정말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저술 동기인지는 단언하기보다 좀

20) 莫礪鋒, 《朱熹文學研究》, 南京大學出版社, 2000, 265쪽 인용.

21) 莫礪鋒, 《朱熹文學研究》, 南京大學出版社, 2000, 266쪽.

22) 莫礪鋒, 《朱熹文學研究》, 南京大學出版社, 2000, 266쪽. “我覺得在當時的政治形勢下 朱、吳不約而同地採用注釋屈賦的方式來頌揚忠貞之士, ……而是針對長期以來存在於南宋朝廷中的投降派的.)

더 보류해 두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보면 시기적으로는 주희와 가장 가까운 楊楫(1142~1213)은 모른다고 하였고, 제일 먼저 陳振孫(1179~1261?)이 관련 내용을 전하지만 慶元黨禁을 포괄적으로 언급하였을 뿐 趙汝愚 사건을 직접 관련짓지는 않았다. 그 다음 趙汝愚와의 직접적인 연계는 周密(1232~1298?)이 처음인 듯하고 이를 청대의 鮑廷博(1728~1814)에 가서는 이를 기정사실화 한 듯 하나 《사고전서총목》에서는 그것만이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리평 역시 이에 대해 대체로 《사고전서총목》의 견해를 따르나 慶元黨禁의 비중을 좀 높게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본고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趙汝愚가 1196년에 사망하였는데, 《楚辭集注》는 그즈음 이미 기본적으로 완성되었거나 이미 成書 단계에 있었기에 저술 동기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한다.

### 3) ‘楚辭’에 대한 이해와 애호 관련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주희의 ‘楚辭’에 관한 저서의 成書 과정에는 물론 역대 논자들이 언급하듯이 남송의 시대 상황이나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處境이나 趙汝愚의 遭遇에 대한 심경의 기탁 등 외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동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문제에 있어서 더욱 근본적인 연유는 앞에서 논한 바 있는 학자 주희의 학술적 동기 그리고 이에 더해 평소 주희가 ‘楚辭’ 특히 굴원과 屈平 작품에 대한 남다른 이해의 깊이와 애호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주희의 ‘楚辭’에 대한 학술적 입장 및 이해 문제는 이미 위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하였기에 더 부연하지 않고, 여기서는 《朱子語類》 등에 보이는 몇몇 관련 내용을 통하여 평소 그의 ‘楚辭’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朱子語類》권104, 제40조목에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옛날에도 모든 것을 공부하려고 하여 禪·道·文章·楚辭·詩·兵法 등을 가지가지 모두 배우려고 하여 드나들 때마다 무수한 글을 모두 두어 책을 지니곤 했는데 하루는 문득 생각하기를 “잠깐, 내 몸이 하나뿐인데 어떻게 많은 것을 두루 겸하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점차 내버리게 되었다(某舊時亦要無所不學, 禪·道·文章·楚辭·詩·兵法, 事事要學, 出入時無數文字, 事事有兩冊. 一日忽思之曰: “且慢, 我只一箇渾身, 如何兼得許多?” 自此遂時去了. 揚(54-6歲)).<sup>23)</sup>

이는 주희가 스스로 학문에 매진하기 위하여 평소 즐겨보던 禪·道·文章·楚辭·詩·兵法 등 유가 학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의 서적들을 경계하는 과정을 술회하고 있다. 사실 이와 같은 기록은 주희가 유가 학술과 문학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주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떨쳐내려고 하기 전 평소에 늘 가까이 해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그가 만난 《楚辭集注》를 편찬한 결과로도 증명이 된 셈이다. 《朱子語類》에서는 또 아래와 같이 전하고 있다.

선생님께서 매번 물이나 돌 하나, 풀 한 포기 나무 하나를 살필 때 조금 맑고 시원한 곳에서 온종일 눈도 깜짝하지 않으셨다. 술을 마셔도 두세 순배를 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만취하게 되면 가부좌를 틀고 앉아 두 손을 들어 모으고, 經·史·子·集 외에도 비록 雜記 기록도 손에 들면 바로 외웠다. 조금 취하면 古文을 읊조렸는데 기운이 맑고 힘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것으로는 선생님께서 매번 屈原의 〈離騷〉 등 楚辭 작품, 그리고 諸葛孔明的 〈出師表〉, 陶淵明的 〈歸去來辭〉와 시, 그리고 杜甫의 몇몇 시를 읊조리기를 좋아할 따름이었다(先生每觀一水一石, 一草一木, 稍清陰處, 竟日目不瞬. 飲酒不過兩三行, 又移一處. 大醉, 則趺坐高拱. 經史子集之餘, 雖記錄雜記, 舉輒成誦. 微醺, 則吟哦古文, 氣調清壯. 某所聞見, 則先生每愛誦屈原楚騷·孔明出師表·淵明歸去來并詩·并杜子美數詩而已). 壽昌(57歲)<sup>24)</sup>

23) 黎靖德 編, 《朱子語類》, 中華書局, 1986, 권104, 제40조목.

24) 黎靖德 編, 《朱子語類》, 中華書局, 1986, 권107, 제52조목.

이 단락 역시 주희의 門人 吳壽昌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부분으로 주희는 평상시 술을 마신 후에도 經·史·子·集을 가까이 한 외에 굴원의 ‘楚辭’ 작품을 제갈량·도연명·두보의 작품과 함께 특히 애송하였음을 볼 수 있다. 위 두 인용문은 대략 주희 나이 55세 전후의 기록으로 그가 본격적으로 《楚辭集注》를 집필했다고 여겨지는 慶元黨禁 시기보다 10년 정도 전이다. 위 두 인용을 보면 ‘楚辭’를 좋아하면서도 경계하려는 결심과 결심 후에도 여전히 가까이하고 있는 듯하여 그의 ‘楚辭’에 대한 각별한 애호를 느낄 수 있다.

이 외에도 주희는 여러 차례 屈騷에 대해 피력하였는데, 단순한 애호를 넘어 굴원의 작품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옛날 사람의 글은 대체로 그냥 평범하게 말했지만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저절로 심원하다. 그런데 후세 사람의 글은 나타내려는 뜻이 풍부하게 하려 하지만 어색하게 된다. 예를 들어 〈離騷〉 같은 경우 처음부터 기이한 말이 없이 그냥 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런데 나중에 황정견 같은 사람은 애써 그렇게 썼지만 도리어 좋지 않다(古人文章, 大率只是平說而意自長. 後人文章務意多而酸澀. 如離騷初無奇字, 只恁說將去, 自是好. 後來如魯直恁地著力做, 卻自是不好. 方子(59이후)). 25)

‘楚辭’의 언어는 평범한데 후인들이 억지로 배워서 쓰다 보니 도리어 어렵게 된 줄 모두 모른다(楚詞平易. 後人學做者反艱深了, 都不可曉). 26)

두 단락을 보면 옛사람의 글 가운데 “그냥 평범하게 말하지만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저절로 심원”한 대표적인 예로 굴원의 〈離騷〉를 들면서 “비록 처음부터 기이한 글자를 쓰지 않고 그냥 말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훌륭했는데” 나중에 송대 황정견 같은 이는 〈이소〉 같은 ‘楚辭’를 모방하여 의도적으로 심원한 의경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미치지 못하게 되었

25) 黎靖德 編, 《朱子語類》, 中華書局, 1986, 권139, 제7조목.

26) 黎靖德 編, 《朱子語類》, 中華書局, 1986, 권139, 제10조목.

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주희는 강서시파의 여풍이 여전히 크게 미치던 남송초기 江西詩派의 ‘一祖三宗’중 ‘一宗’으로 제일 큰 영향력을 가진 황정건과의 대비를 통하여 <離騷>를 비롯한 ‘楚辭’의 문학 예술적 성취에 대하여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가 <離騷> 등 굴원 작품과 굴원 이후 ‘楚辭’의 작가나 漢代의 작품에 대한 다른 평가를 보자.

“詩三百의 ‘經’과 ‘傳’으로 나누는 것은 무슨 근거입니까?”라고 여쭙니, 주희는 “이는 呂祖謙에게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風雅’ 가운데 ‘正風’·‘正雅’는 ‘經’이고, ‘變風’과 ‘變雅’는 ‘傳’과도 같다. 굴원이 지은 <離騷>는 ‘經’이고, 후인들이 지은 <反騷>와 <九辯> 등의 부류는 ‘傳’인 것과 같을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問: “分詩之經, 詩之傳, 何也?” 曰: “此得之於呂伯恭. 風雅之正則爲經, 風雅之變則爲傳. 如屈平之作離騷, 卽經也. 如後人作反騷與九辯之類則爲傳耳.” 輝.) 27)

여기서는 ‘經’과 ‘傳’의 차이에 관한 질문에 주희는 굴원의 작품과 굴원 이후 초사거나 漢代 辭賦家の 모방작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經’과 ‘傳’으로, 그리고 ‘正風’·‘正雅’와 ‘變風’·‘變雅’의 차이로 나눠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통하여 주희가 굴원의 작품에 대해서 후대의 여타 초사체 작품 그리고 모방작과는 확연히 다르게 굴원 작품을 ‘經’에 빚낼 정도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주희의 아래 <題記>의 내용은 우리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굴원의 사람됨은 그 뜻과 행실이 비록 중용의 도를 넘어 모범으로 삼을 수 없을 때도 있긴 하나 모두가 임금에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진심에서 나왔다. 굴원의 작품은 그 문사의 뜻은 비록 간혹 방탕하거나 괴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여 교훈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있긴 하나 모두가 매우 염려하고 걱정하여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지극한 마음에서 나왔다. 굴원이 비록 북방에서 주공이나 공자의 도를 배울 줄을 몰라 홀로

27) 黎靖德 編, 《朱子語類》, 中華書局, 1986, 권80, 제100조목.

變風이나 變雅와 같은 말류에서 치달았기에 순정한 儒家는 간혹 그를 언급하기를 부끄럽게 여기기도 한다. 그렇지만 추방당한 신하나 은둔자, 집에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은 아낙네, 길 떠나는 지아비 같은 이가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며 읊조려서, 임금이 다행히 그것을 듣게 된다면 서로 천성과 민의의 선량함에 서로 마음을 불러일으켜 삼강오륜에 무게를 더하기에 어찌 족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매번 그의 글을 음미하면서 굴원의 작품을 감히 직접 詞人之賦로 치부하지 못하는 이유이다(原之爲人, 其誌行或過於中庸而不可以爲法, 然皆出於忠君愛國之誠心. 原之爲書, 其辭旨雖或流於跌宕怪神, 怨懟激發而不可以爲訓, 然皆生於縉纒惻怛. 不能自己之至意. 雖其不知學於北方, 以求周公·仲尼之道, 而獨馳騁於變風·變雅之末流, 以故醇儒莊士或羞稱之. 然使世之放臣·屏子·怨妻·去夫攷淚謳吟於下, 而所天者幸而聽之, 則於彼此天性民彝之善, 豈不足以交有所發, 而增夫三綱五典之重! 此予之所以每有味於其言, 而不敢直以‘詞人之賦’視之也).<sup>28)</sup>

이는 그의 《楚辭集注》〈題記〉에 보이는 말이라 주희의 굴원 ‘楚辭’에 대한 ‘定論’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주희는 여기에서 굴원의 ‘楚辭’가 굴원의 처세나 일부 문제 때문에 간혹 典範으로 삼을 수 없거나 교훈으로 삼을 수 없기도 하고 또 ‘變風’이나 ‘變雅’의 말류로 흐른다는 우려 때문에 간혹 유가적 성향이 농후한 학자들이 굴원이나 굴원의 글을 일컫기를 부끄러워하는 풍조에 대해서 사실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굴원의 작품을 단순한 ‘詞人之賦’로만 치부함에는 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판단하는 주요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그의 지행은 간혹 중용의 도를 벗어났다고 여기기도 하지만 모두 忠君愛國의 誠心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둘째, 그의 ‘辭旨’가 간혹 ‘跌宕怪神’하거나 ‘怨懟激發’한 부분이 있지만 모두가 ‘縉纒惻怛’하여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지극한 마음[至意]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28) 朱熹, 《楚辭集注》, 上海古籍出版社, 2022, 4-5쪽.

셋째는 비록 북방에 태어나지 않아서 ‘風雅’의 道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 ‘變風’·‘變雅’의 말류에서 치달긴 하였으나 그것이 가진 諷諫의 뜻은 그래도 ‘三綱五典’에 무게를 더할 수도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희의 글원에 대한 총평에 해당하는 “홀로 ‘變風’이나 ‘變雅’와 같은 말류에서 치달렸다(獨馳騁於變風·變雅之末流)”와 “글원의 작품을 감히 직접 詞人의 賦로 여기지 못한다(不敢直以‘詞人之賦視之也)’”라는 평가를 劉勰의 평가와 비교해 보면 평가가 갖는 의미가 더욱 드러난다. 劉勰은 《文心雕龍》〈辨騷〉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淮南王劉安……班固……王逸……揚雄…… 이상 네 사람은 〈이소〉를 들어 경서에 건주었지만, 그들이 보기는 하였으나 아주 정확하지는 않고 즐겨 감상하면서도 사실을 따져보지는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평론을 검증해 보려면 반드시 그 말에서 검증해 보아야 한다. ……《尚書》의 典誥의 文體에 부합하는 것……《詩經》의 諷諫의 뜻과 같다 ……《詩經》의 比興의 뜻과 같다. ……충성스러우나 원망하는 마음을 품은 말들이다. 이 네 가지 사실로 보면 이는 《詩經》의 〈風〉·〈雅〉와 같은 것이다. ……괴이한 말들이다. ……기괴한 이야기이다. ……성급하고 속이 좁은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음란한 마음이다. 이 네 가지 일들을 들어서 보면 이는 경전과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典誥와 같이 경전에서 논한 것과 같은 것은 앞에서 말한 네 가지와 같고, 과장되고 황당한 것을 말한 것으로든 뒤에서 말한 네 가지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楚辭’라고 하는 것은 그 문체는 三代를 본받고 있지만, 전국시대의 사회 분위기가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楚辭’는 〈雅〉·〈頌〉과 같은 《詩經》 작품에 비하면 도박꾼과 같이 비천하지만 詞賦에서는 영걸과도 같다(淮南……班固……王逸……揚雄……, 四家舉以方經, 可謂鑿而弗精, 玩而未核者也. 將核其論, 必徵言焉. ……), 典誥之體也; ……規諷之旨也; ……比興之義也; ……忠怨之辭也. 觀茲四事, 同於〈風〉〈雅〉者也. ……詭異之辭也; ……譎怪之談也; ……狷狹之誌也……, 荒淫之意也: 摘此四事, 異乎經典者也. 故論其典誥則如彼, 語其誇誕則如此. 固知楚辭者, 體憲於三代, 而風雜於戰國, 乃〈雅〉·〈頌〉之博徒, 而詞賦之英傑也.)<sup>29)</sup>

29) 周振甫 注 《文心雕龍注釋》，臺北：里仁書局，1994，〈辨騷〉，49-50쪽.

여기에서 보면 주희의 “홀로 ‘變風’이나 ‘變雅’의 말류에서 치달렸다.”와 “굴원의 작품을 감히 직접 詞人の 賦로 여기지 못한다.”는 총평은 劉勰이 《文心雕龍》〈辨騷〉에서 내린 “風雅와 견주면 博徒에 불과하지만 詞賦 가운데에서는 英傑이다(風雅之博徒, 詞賦之英傑)”란 평가, 즉 유희는 ‘詩經’ 시와 같은 經書의 君子적 위상에 비해서 굴원과 굴원의 작품이 ‘博徒’와 같이 비천한 지위지만 ‘詞賦’라는 문학적 영역에서는 그래도 ‘英傑’로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희의 평가는 이러한 유희의 평가와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유희가 굴원의 작품은 ‘詩經’ 시와 같은 면과 다른 면이 각각 있지만 결국 ‘博徒’의 위치에 놓은 것은 주희가 말한 “홀로 變風이나 變雅의 말류에서 치달렸다”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듯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유희로서는 문학적 측면에서 최고의 찬사이긴 하나 여전히 ‘風雅’와는 구분되는 ‘詞賦’ 가운데 英傑임을 명확히 구분 지어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주희는 詞賦에 놓기보다 “감히 직접 詞人の 賦로 여기지 못한다(不敢直以‘詞人之賦’視之也)”라고 하여 ‘變風’이나 ‘變雅’의 말류로 ‘風雅’의 끝자락이긴 하지만 일반 ‘詞賦’와는 다른 차원으로 두고 싶어 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주희의 이러한 평가는 대체로 문학 예술적 특성과 함께 굴원의 “忠君愛國之誠心”과 “縉纒惻怛·不能自己之至意”와 “增夫三綱五典之重”과 같은 유가적 덕목에 부합하는 특성에 대한 긍정에 기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기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주희가 굴원의 ‘楚辭’에 대하여 평소 상당한 애호와 이해를 지니고, 또 《文心雕龍》〈辨騷〉에서 전인의 굴원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문학적 관점에서의 높은 평가와 비교해 봐도 주희의 만년 평가가 오히려 더 높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을 통해서 보면 기존의 연구자들은 대체로 《楚辭集注》의 저술 동기와 주희 자신과 趙汝愚 등이 함께 연루되었던 慶元黨禁에 실마리를 두고 있는데, 필자가 《朱子年譜》나 《朱子語類》를 통하여 보아도 비록 20세 전후부터 ‘楚辭’에 대한 언급이 보이긴 하지만 주로 55세 이후 언급이 확연히 많이 보이고 특히 慶元黨禁 전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

고, 趙汝愚에 대한 언급도 마찬가지여서 그 사건이 저술의 완성에 하나의 촉진제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다만 시기적으로 그러한 사건들은 이미 成書 단계에 접어들고 나서의 일이라 저술 동기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저술 동기와 관련된 가장 유력한 근거는 무엇보다 본인의 자술이고 다음으로는 《朱子語類》와 같은 공신력이 있는 저술에서 언급이 신뢰할 만하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실제 위의 〈序〉에서 보듯 학자 주희가 이전 ‘楚辭’ 관련 저술의 부족함을 보완하고자 한 학술적 동기가 매우 뚜렷함을 알 수 있었고, 또 《朱子語類》 여러 곳을 통하여 그가 학술적 저술 동기를 갖기 전 평소 굴원 ‘楚辭’에 대한 문학적 흥취와 각별한 애호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었기에 이러한 요소가 《楚辭集注》 등 저술을 시작하게 된 더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동기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구나 한 편의 시나 문장이라면 한 가지 사건에 대한 감흥이나 기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楚辭集注》와 같은 저술은 더더욱 장기간의 열정과 노고가 필요한 작업이고 더욱이 학자 주희가 만년의 마지막 시간을 할애할 정도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 제자 楊楫의 술회에서 주희가 어느 날 《楚辭集注》를 내어놓으며 왜 하필 그 책을 저술하였는지 명확히 말하지 않았고, 제자들도 감히 그 이유를 여쭙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주희가 말하지 않고 제자들이 물어보지 못한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 하나는 그가 “순정한 儒家는 간혹 그를 언급하기를 부끄럽게 여긴다(醇儒 莊士或羞稱之)”<sup>30)</sup>라고 한 이유이든가 아니면 趙汝愚 사건을 포함한 黨禁이 1195년에서 1202년 주희(1130~1200)가 사망하고 나서까지 지속되었으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 서로 말을 아껴서이거나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어쨌면 이러한 이유로 楊楫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물을 수 없었지만, 후에 黨禁이 해제되고 주희에 대한 復權도 이루어진 뒤 陳振孫의

30) 朱熹, 《楚辭集注》, 上海古籍出版社, 2022, 4쪽.

《直齋書錄解題》, 周密의 《齊東野語》와 王應麟의 《困學紀聞》 등을 거치며 해당 사건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었던 것이라 추정된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慶元黨禁이나 趙汝愚 사건이 주희의 ‘楚辭’ 관련 저술의 동기라고 볼 수 없고, 단지 成書 과정에서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변동이 없다.

## 2. 초사학에서 주희의 《楚辭集注》가 갖는 의의

주희의 초사학이 갖는 학술사적 의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학술적 성취 자체 측면에서의 의의와 그것이 후대 학술사에 끼친 영향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본고의 초점은 주희의 초사학이 학술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취가 있는지 그 자체를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의 성취가 어떠한 또 다른 의의를 지니는지에 두었다. 그래서 그의 성취에 관해서는 본고가 직접 밝히기보다는 주로 前人의 ‘楚辭’에 대한 언급을 통해 그 위상을 확인해 본다.

우선 ‘楚辭’는 《四庫全書總目》의 〈集部〉류의 첫머리에 ‘楚辭類’를 놓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集部の 목록 가운데 楚辭가 가장 오래되고 別集이 그 다음이다. 詩文에 대한 평은 또 늦게 나왔고 詞曲은 나중에 보태진 것이다(集部之目, 楚辭最古, 別集次之, 詩文評又晚出, 詞曲則其間餘也).<sup>31)</sup>

즉 여기서는 集部 가운데 ‘楚辭’가 ‘別集’, ‘詩文評’이나 ‘詞曲’에 비해 가장 오래되었기에 가장 앞에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31) 永裕 等, 《四庫全書總目》 卷148, 〈集部總叙〉, 1267쪽.

《隋書經籍誌》의 集部에서 ‘楚辭’를 따로 한 부문으로 분류한 후 역대 그것을 따르게 되었다. 漢魏 이래로 賦體가 변하면서 全集을 모두 이 문체로 쓴 것은 없다. 다른 集書들은 ‘楚辭’류와 다르고, ‘楚辭’ 또한 다른 集書와 같지 않다. 體例가 다르니 이치상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隋誌》集部以《楚辭》別爲一門, 歷代因之. 蓋漢魏以下, 賦體既變, 無全集皆作此體者. 他集不與《楚辭》類, 《楚辭》亦不與他集類, 體例既異, 理不得不分著也).<sup>32)</sup>

여기서는 ‘楚辭’를 따로 독립적으로 분류한 이유는 集部에 속하는 다른 문체의와는 다른 특징을 가졌기에 따로 분류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다른 문체와의 차별성 외에도 ‘楚辭’라는 문체에 대해 그만큼 중요시하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楚辭’ 영역에서 주희의 《楚辭集注》는 ‘楚辭’류의 저작 가운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공헌이 있는지의 문제, 즉 초사학 자체에서의 공헌을 보면 우선은 《楚辭集注》〈序〉에서도 밝혔듯 전인의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수정·보완의 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모리평은 그의 저서 《주희문학연구》에서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남·북송 간 洪興祖가 王逸의 주본을 정리하고 밝혀 《楚辭補注》 17권을 완성하였다. 洪興祖의 《楚辭補注》는 비록 간혹 新義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王逸의 《楚辭章句》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楚辭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漢代학술의 범위 안에서 머물고 있었다. 주희의 《楚辭集注》(《楚辭辯證》와 《楚辭後語》를 포함)가 완성되고서 비로소 초사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어서 《楚辭集注》는 또한 초사학사에서 하나의 里程碑가 되었다.<sup>33)</sup>

32) 永瑤 等, 《四庫全書總目》, 〈集部〉〈楚辭類〉 中華書局, 1987, 1267쪽.

33) 莫礪鋒, 《朱熹文學研究》, 南京大學出版社, 2000, 262-263쪽 “南北宋之間, 洪興祖對王逸注本加以疏通證明, 成《楚辭補注》十七卷, 洪氏補注雖然間有新義, 但總的來說, 還未能對王注有重要的突破, 楚辭研究仍然停留在漢代學術的範圍之內, 直到朱熹的《楚辭集注》(包括《楚辭辯證》《楚辭後語》)一書編成, 才使楚辭研究出現了全新的局面, 而《楚辭集注》也就成爲楚辭學史上的一座里程

이와 같이 주희의 《楚辭集注》가 중국 초사학사에서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연 하나의 里程碑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한 후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요즘 사람 易重廉은 《楚辭集注》를 “중국 초사학에 있어서 두 번째 큰 비석과도 같다”(《中國楚辭學史》 293쪽, 湖南出版社 1991년 본)라고 했고, 戴志鈞은 그것을 세 번째 이정표라고 했다(〈論朱熹在楚辭學史上的開拓性貢獻〉, 《文史哲》 1990년 제3기). 나는 前者 즉 주희의 《楚辭集注》가 왕일의 《楚辭章句》의 뒤를 이은 가장 중요한 《楚辭》의 注本이라는 것에 동의한다.<sup>34)</sup>

즉, 모리평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는 楚辭學史에서 宋代 주희 이전 洪興祖의 《楚辭補注》를 건너뛰고 漢代 王逸의 《楚辭章句》를 직접 잇는 두 번째 里程碑에 해당한다고 여기고 있다. 즉 이는 주희의 《楚辭集注》의 학술사적 가치가 홍흥조의 《楚辭補注》를 능가하여 漢代 王逸의 《楚辭章句》에 버금가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희의 《楚辭集注》가 나온 후 많은 이의 중시를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南宋의 陳振孫(1179~1261?)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이전 注의 폐단을 없애서 굴원의 미언대의를 천년 후에 밝혀서 굴원의 충의로운 혼백에 일시에 생기가 돌게 되었다(祛前注之蔽陋, 而發明屈子微意於千載之下, 忠魂義魄, 頓有生氣).<sup>35)</sup>

碑.”

34) 莫礪鋒, 《朱熹文學研究》, 南京大學出版社, 2000, 263쪽, 주1. “今人易重廉稱《楚辭集注》為“中國楚辭學第二座豐碑”(《中國楚辭學史》第293頁, 湖南出版社, 1991年版), 戴志鈞則稱之為第三個里程碑(見〈論朱熹在楚辭學史上的開拓性貢獻〉, 《文史哲》1990年第三期), 我同意前一說, 即朱注是繼王逸注之後最為重要的《楚辭》注本.”

35) 陳振孫, 《直齋書錄解題》《叢書集成初編》本, 上海:商務印書館, 1937.

즉 주희의 《楚辭集注》가 이전 해석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비로소 그간 가려있던 골원 ‘초사’ 진면목을 볼 수 있게 하였다고 보고 있다.

明末清初의 儲欣(1631~1706)은 당시 유전하던 ‘楚辭’ 注本에 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내가 보건대 淮南王 이후에 ‘楚辭’에 주석을 단 사람은 이미 대략 백여 家가 넘지만 지금 오직 王逸과 朱熹의 주석서 두 家만 그 책이 전한다(余按漢淮南王後, 注騷者無慮百十家, 今惟王叔師·朱考亭二注家有其書).<sup>36)</sup>

그리고 비슷한 시기의 毛表(1638~?)도 《楚辭補注》를 간행하며 〈跋〉에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오늘날 유전되는 《楚辭》는 모두 대체로 주희의 《楚辭集注》本이다 (今世所行《楚辭》, 率皆紫陽注本)<sup>37)</sup>

이를 종합해 보면 주희의 《楚辭集注》가 淸初 가장 널리 읽힌 ‘楚辭’의 참고서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楚辭集注》는 明·淸시기 이미 널리 전파되어 다른 注本들을 넘어서서 王逸의 《楚辭章句》와 함께 가장 널리 읽힌 《楚辭》의 注釋書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주희의 《楚辭集注》가 宋·明을 이어 淸代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고는 주희의 특수한 신분과 관련이 크다고 생각한다. 즉 ‘楚辭’는 《詩經》과 달리 본래 지극히 문학적 영역의 성격이 강했던 터라 주희 스스로도 “순정한 儒家는 간혹 그를 언급하기를 부끄럽게 여긴다(醇儒莊士或羞稱之)”<sup>38)</sup>라고 한 바와 같이 전통 유학자들로부터 크게 중시받지 못했을

36) 徐煥龍, 《屈辭洗髓》〈儲欣序〉(淸康熙三十七年戊寅無悶堂刊本, <https://m.dushu.com/showbook/128392/1874884.html> 참고).

37) 洪興祖, 《楚辭補注》, 北京: 中華書局, 1983, 328쪽.

38) 朱熹, 《楚辭集注》, 上海古籍出版社, 2022, 4쪽.

뿐만 아니라 주희 같은 사람도 수시로 젊은 시절 ‘楚辭’를 애독하던 일을 반성한 것을 보면 오히려 전통 유가 지식인이 경계할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楚辭集注》가 명·청이래로 가장 중요한 《楚辭》의 독본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성리학의 대종사인 주희가 이를 ‘集注’한 것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한다. 즉 성리학의 대종사 주희가 ‘楚辭’에 관심과 애호를 표시하고 또 《楚辭集注》라는 저작을 남기게 됨으로써 후세 성리학자들이 ‘楚辭’가 儒家의 경전이 아니라고 해서 배척하지 않도록 方便의 門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중국의 송·원·명·청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독보적 이어서 심지어 儒聖 孔子와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실제 조선시대 학술 전반에 미친 영향의 크기만 놓고 보면 孔子 그 이상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필자가 직접 [한국고전종합DB]<sup>39)</sup>에서 몇몇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아래와 같은 수치를 얻을 수 있었다.

〈표 1〉 [한국고전종합DB]에서 키워드 검색 통한 출현 수

검색어	총출현 수	검색어	총출현 수
朱子	53,304	朱熹	13,294
孔子	38,102	孟子	36,199
屈原	5,634	楚辭	4,333+254 <sup>40)</sup>
詩經	15,986	詩集傳	230
離騷	3,526	屈子	800
屈平	375	楚辭集注	69+71 <sup>41)</sup>
楚辭章句	69	楚辭補注	30+5 <sup>42)</sup>
王逸	433	洪興祖	77

39) <https://db.itkc.or.kr/>

40) ‘楚詞’로 검색, 254회.

41) ‘楚辭集註’로 검색, 70회.

검색어	총출현 수	검색어	총출현 수
朱子語類	4,291	朱子大全 <sup>43)</sup>	5,560
朱子全書	518	朱子全集	6
朱子年譜	308		

우선 ‘朱子(53,304)’로 검색했을 때 ‘朱熹(13,294)’로 검색 때 보다 약 4배 정도<sup>44)</sup> 많아서 이를 통해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주희에 대한 추앙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고, ‘孔子(38,102)’나 ‘孟子(36,199)’보다도 훨씬 많은 빈도를 보인다는 사실로 주희가 조선시대 지식인들 마음속에 차지하는 위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楚辭’ 관련 키워드에서 ‘楚辭(4,587)’가 ‘詩經(15,985)’에 비해 3분의1 정도이나 주희의 ‘楚辭集注(140)’는 주희의 ‘詩集傳(230)’의 절반 이상에 이른다. 그리고 ‘楚辭集注(140)’가 ‘楚辭章句(77)’나 ‘楚辭補注(30)’보다 월등히 많은 점도 주희의 《楚辭集注》가 여타 《楚辭》 관련 주석본에 비해 더욱 많은 중시를 받았음을 알 수 있어서 주희의 《楚辭集注》가 조선시대 程朱성리학 영향 하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Ⅲ. 결어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주희가 만년에 《楚辭集注》의 저술에 진력하게 된 연유가 무엇이었는지, 또 주희의 그러한 저술이 학술사적으로 어떤 의

42) ‘楚辭補註’로 검색, 5회.

43) ‘朱文公文集’으로는 74회.

44) 이 가운데 서명으로 언급된 ‘朱子大全’ 5,560, ‘朱子語類’ 4,292, ‘朱子全書’ 518, ‘朱子年譜’ 308, ‘朱子全集’ 6, 도합 10,684를 제외해도 여전히 42,620회로 압도적으로 많다.

미를 지니는지 등의 문제를 그가 가진 성리학 대중사라는 신분적 특수성에 착안하여 그 의미를 고찰해 본 결과 대략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무엇보다 그의 《楚辭集注》〈序言〉에서 밝힌 바와 같이 王逸과 洪興祖 등과 같은 기존 연구자의 저작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학술적 입장에서의 불만으로 이를 보완하고 수정하고자 한 의도가 컸다.

둘째, 주희는 평소 굴원의 ‘楚辭’를 매우 즐겨 읽었고 이해 수준이 깊고 넓었다. 이에 본고는 특별히 주희의 평가를 劉勰 《文心雕龍》〈辨騷〉에서의 굴원에 대한 평가와 비교를 통해 본 결과 주희의 굴원 楚辭에 대한 평가가 《文心雕龍》에서의 평가에 못지않게 심도가 깊으며 특히 굴원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는 오히려 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기존의 연구자들이 주요 동기로 언급해 온 것은 남송의 시대 상황이나 자신의 사회적·정치적 處境이나 趙汝愚의 遭遇에 대한 심경의 기탁 등이다. 필자가 보기에 그 사건이 成書 과정에서 하나의 촉진제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나 그것들은 시기적으로 이미 成書 단계에서 생겨난 문제이기에 成書 과정의 촉진제나 추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저술의 근본 동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언급 시기와 연계하여 보면 주희와 거의 동시기의 楊楫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물을 수 없었지만, 후에 陳振孫, 周密과 王應麟, 그리고 明·淸대를 거치며 이미 黨禁이 해제되고 주희 등에 대한 복권이 이루어진 후라 정치적 금기나 민감성이 해소된 후였기에 세부적인 사실을 기탄없이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朱子語類》나 《朱子年譜》를 통해 주희가 慶元黨禁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楚辭’에 대한 흥취와 애호, 그리고 이전 주석본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온 점으로 볼 때 《楚辭集注》의 집필의 시작은 慶元黨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해도, 그가 주로 그의 나이 60세 후 특히 慶元黨禁을 전후로 관련 언급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아 본격적인 집필과 완성은 65세 전후로 보이기에 이러한 환경이 成書 단계에서 집필의

완성으로 이끄는 데는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희의 《楚辭集注》가 宋·明을 이어 清代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저술의 학술적 우수성 자체로 중요한 요소이지만 본고는 아무래도 주희의 특수한 신분이 작용한 바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성리학의 대종사인 주희가 ‘集注’함으로써 후세 많은 성리학자를 포함한 儒家지식인들에게도 읽어도 무방한 ‘方便之門’을 열어준 공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 <참고문헌>

- 莫礪鋒 著, 이흥진·안찬순 공역 《주희 문학의 연구》, 역락, 2015.
- 박영환, 〈송대 초사학의 발전과정과 그 영향〉, 《중국어문학지》 제5호, 1998.
- 안찬순, 〈《文心雕龍》〈辨騷〉篇幾個問題的商榷〉, 《중국어문학》 제25호, 2005.
- 蔡方鹿·趙聃, 〈百年來朱熹理學與文學關係研究的回顧與展望〉, 2017.
- 陳振孫, 《直齋書錄解題》《叢書集成初編》本, 上海: 商務印書館, 1937.
- 郭丹, 〈《四庫全書總目》中的楚辭批評〉, 《漳州師範學院學報》 哲學社會科學版 2007, 第3期 pp.62-67.
- 郭紹虞 主編, 《中國歷代文論選》 1, 上海古籍出版社, 1983.
- 洪興祖, 《楚辭補注》, 北京, 中華書局, 1983.
- 江瀚, 《先秦至宋代楚辭學研究》, 蘇州大學, 박사학위 논문, 2012.
- 姜亮夫, 《屈原賦校注》,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57.
- 姜亮夫, 姜昆式, 《屈原與楚辭》, 安徽教育出版社, 1996.
- 黎靖德 編, 《朱子語類》, 中華書局, 1986.
- 李永明, 〈朱熹《楚辭集注》成書考論〉, 《西南交通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9卷 第2期, 2008.

- 林姍, 《宋代屈原批評研究》, 福建師範大學, 박사학위 논문, 2011.
- 毛慶, 《宋代楚辭研究思想初探》, 《西部學刊》 2015.2.
- 莫礪鋒, 《朱熹文學研究》, 南京大學出版社, 2000.
- 朴永煥, 《朱熹的文學觀和他注釋《楚辭》的態度》, 《天府新論》 제4기, 1995.
- 朴永煥, 《朱熹撰《楚辭集注》의動機考》, 《先秦兩漢文學論集》, 2004.6.
- 時小煥, 《朱熹《楚辭集注》研究》, 河南大學, 석사학위 논문, 2015.
- 孫光, 《漢宋楚辭研究的歷史轉型 -《章句》·《補注》·《集注》比較研究》, 河北大學, 박사학위 논문, 2006.
- 孫巧雲, 《元明清楚辭學研究》, 蘇州大學, 박사학위 논문, 2011.
- 王懋竑 纂訂, 《朱子年譜考異附錄》, 臺灣: 商務印書館, 1971.
- 王應麟, 《困學紀聞》, 商務印書館, 1959.
- 吳長庚, 《近百年朱熹文學研究的回顧與反思》, 《文學評論》 2008, 第3期.
- 徐煥龍, 《屈辭洗髓》, 靖康熙三十七年戊寅無悶堂刊本.
- 易重廉, 《中國楚辭學史》, 湖南出版社, 1991.
- 永瑢 等, 《四庫全書總目》, 中華書局出版, 1987.
- 趙昞, 《20世紀以來朱熹經學與文學研究綜述》, 《經學與文學》, 2015.
- 周建忠, 《《楚辭》在韓國的傳播與接受》, 《文學遺產》 第6期, 2014.
- 周振甫注, 《文心雕龍注釋》, 臺北: 里仁書局, 1994.
- 朱熹 撰·黃靈庚 點校, 《楚辭集注》, 上海古籍出版社, 2022.
-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 <Abstract>

Zhu Xi devoted his life to academics and achieved great achievements in Song Dynasty scholarship, which had a huge impact on subsequent

academic studies in China and East Asia. Therefore, Zhu Xi has always been called ‘Zhu‘zi’(朱子)’. Among the historical figures in Chinese academic history, apart from the pre-Qin scholars, Zhu Xi is the only one who has almost no objection to being called ‘Zhu Zi’. This alone is enough to show his special status in academic history.

In the history of Chinese academics, Zhu Xi can be said to be very special in many aspects. The most striking among them is that although he was an outstanding master of Neo-Confucianism, he also had a strong interest and profound love for literature and literary creation. Achievements, unlike the previous Neo-Confucianists such as Zhou Dunyi and Er Cheng who generally held a negative attitude towards literature. He has written more than 1,300 poems, and his views on literature are scattered in works such as 《Zhu Zi Yu Lei(朱子語類)》, 《Zhu Zi Quan Shu(朱子全書)》 and 《Han Wen Kao Yi(韓文考異)》, 《Shi Ji Zhuan(詩集傳)》 and 《Chu Ci Ji Zhu(楚辭集注)》. His understanding and attainments in literature are not only comparable to those of other professional literati, but in terms of the overall level presented in these works, he has achieved achievements that are difficult for any other professional literati to achieve.

In fact, from today's point of view, the works of 《Shi Jing(詩經)》 and 《Chu Ci(楚辭)》 themselves belong to the category of literature. However, from the academic point of view of Zhu Xi at the time, his 《Shi Ji Zhuan(詩集傳)》 not only belonged to the category of literature, but also belonged to the field of Confucian classics. Therefore, it was natural for Zhu Xi, a master of Neo-Confucianism, to write it. However, the related works of his 《Chu Ci Ji Zhu(楚辭集注)》 are works in the field of literature, so it is indeed unusual for Zhu Xi, a master of Neo-Confucianism, to devote all his efforts to writing it in his later

years.

Through investigation,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of all, according to what he disclosed in the <Preface(序言)>, from an academic standpoint, Zhu Xi was dissatisfied with the previous academic achievements such as <<Chu Ci Zhang Ju(楚辭章句)>> by Wang Yi(王逸) of the Han Dynasty and <<Chu Ci Bu Zhu(楚辭補注)>> by Song Hongxingzu(洪興祖), and wanted to conduct research on it (Corrections and additions).

Secondly, Zhu Xi liked to read Qu Yuan(屈原)'s 'Chu Ci' and Qu Yuan's person since he was young. We can see from <<Zhu Zi Yu Lei(朱子語類)>> and <<Zhu Zi Nian Pu(朱子年譜)>> that he had developed a strong love for 'Chu Ci' when he was about 20 years old. The author then compared Zhu Xi's evaluation of Qu Yuan's 'Chu Ci' through <Bian Sao(辨騷)> in <<Wen Xin Diao Long(文心雕龍)>>, which confirmed that Zhu Xi had a unique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Qu Yuan's 'Chu Ci'.

Third, previous researchers mostly mentio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and Zhu Xi's various situations under the 'Qingyuan Party Ban(慶元黨禁)' at that time and his writing <<Chu Ci Ji Zhu(楚辭集注)>>. In the author's opinion, it is indeed difficult for us to deny that those However, since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relevant documents we see today is mostly speculative content of later generations, the reliability of its facts is limited.

To summarize Zhu Xi's motivation for writing 'Chu Ci', I think his usual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Qu Yuan's 'Chu Ci' should be the key, and then the atmosphere of the times, including the 'Qingyuan Party Ban', played a driving role. As for the reason why Zhu Xi did

not clearly state his motivation for writing, it seems that it is inseparable from the two factors of his so-called “shame” and “party ban”.

As for the reason why most people from the Song and Ming dynasties to the Qing Dynasty and in our country Choson, Zhu Xi's 《Chu Ci Ji Zhu(楚辭集注)》 as the basis for reading ‘Chu Ci’, the author believes that Zhu Xi's special status as a Neo-Confucian master played a big role. In other words, unlike the 《Shi Jing(詩經)》, the 《Chu Ci》 originally had a strong literary attribute and had little to do with Confucianism. It is even an object that traditional Confucianists think is harmful to ‘Xue(學)’, so they should be wary of it. Because it was written by Zhu Xi, who was a master of Confucianism, it opened a door of convenience for later generations of scholars and literati.

This fact can be confirmed from the Chinese academic history through various previous documents and the 《Sikuquanshu General Catalog(四庫全書總目)》 and other documents. As far as Chosun is concerned, this study also specially selected several keywords and passed [Korean Classic Comprehensive DB(韓國古典綜合DB)] query, and got very reference results.

Key Words : 주희(Zhu Xi), 특수신분(Zhu Xi's special identity), 초사집주 (Chu Ci Ji Zhu), 경원당금(Qingyuan Party Ban), 초사학 (Research on Chuci)